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아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아침묵상

여름동안 아침묵상을 쉬기로 했습니다. 아침묵상은 9월부터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름동안에도 여러분의 삶의 예배와 경건생활이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지속됨으로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중보합니다.

3. 뉴저지 어머니 학교

저희 교회 건물에서 열리게 될 뉴저지 어머니 학교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 : 2023년 10월 14일,15일(토,주일) / 21일,22일(토,주일) 오후 2시 30분
장소 : 뉴저지 함께하는교회 친교실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 (7/23)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876.79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최빅토리아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고후 7:2-16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이렇게 가는게 맞습니까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8월 6일	8월 13일
윤하나	김종대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아침묵상	(화-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아는 만큼 보인다

무심코 지나쳐 버리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갖고 주의깊게 살펴보면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심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작동하는 것이지만 성경은 세심하게 관찰하고 묵상할 수록 얻게 되는 그 맛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 깊은 맛을 보고나서야 비로소 성경에 폭 빠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글씨를 본 것에 불과하다면 그 뒤부터 성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을 함께 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앎'이란 피상적인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체험적 지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계시와 방법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며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채찍과 못박힘으로 완주하신 그 길의 의미를 알고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 즉 눈을 뜨지 못한 자들은 그 '승리'를 세상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성공과 높은 고지를 점령하는 그 무엇으로 바꿔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의 깊이는 이 세상 높은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돌리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를 가리킵니다.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기 전에 가지고 살던 옛습관, 옛가치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고 알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체험하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잊지 마세요.

기독교의 지향점은 예수를 이용한 성공과 번영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과감히, 거칠게